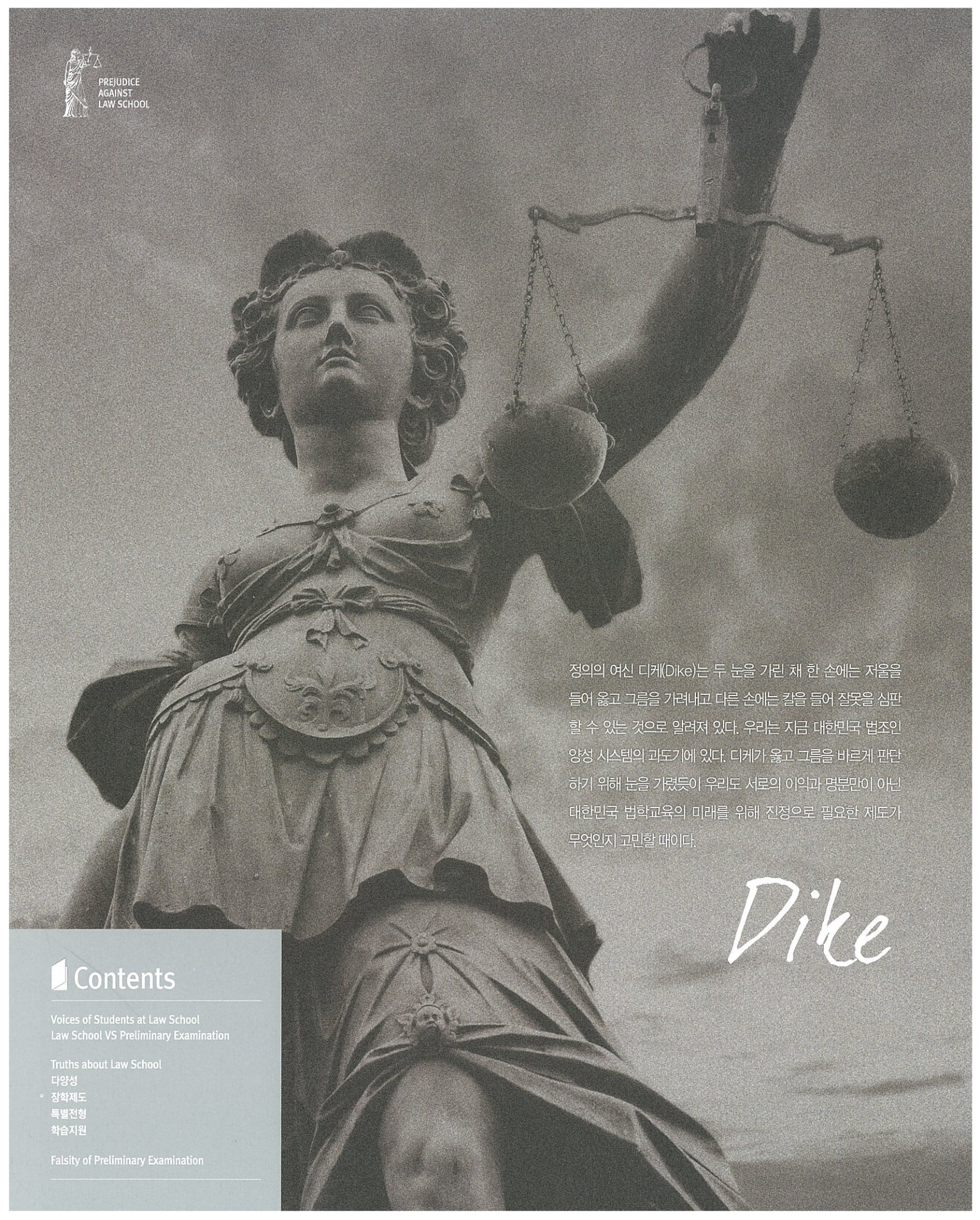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

PREJUDICE AGAINST LAW SCHOOL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들어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어 잘못을 심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과도기에 있다. 디케가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눈을 가렸듯이 우리도 서로의 이익과 명분만이 아닌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이다.

Dike

Contents

Voices of Students at Law School
Law School VS Preliminary Examination

Truths about Law School

- 다양성
- 장학제도
- 특별전형
- 학습지원

Falsity of Preliminary Examination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사법시험을
준비할 수 없던 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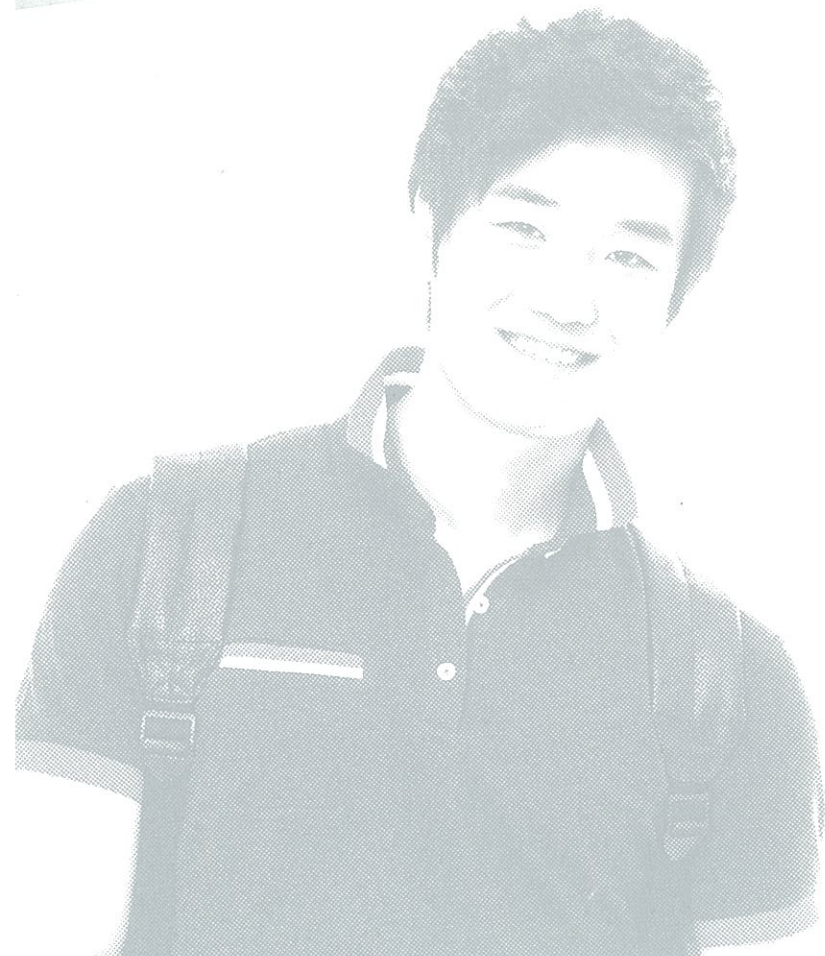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법학전문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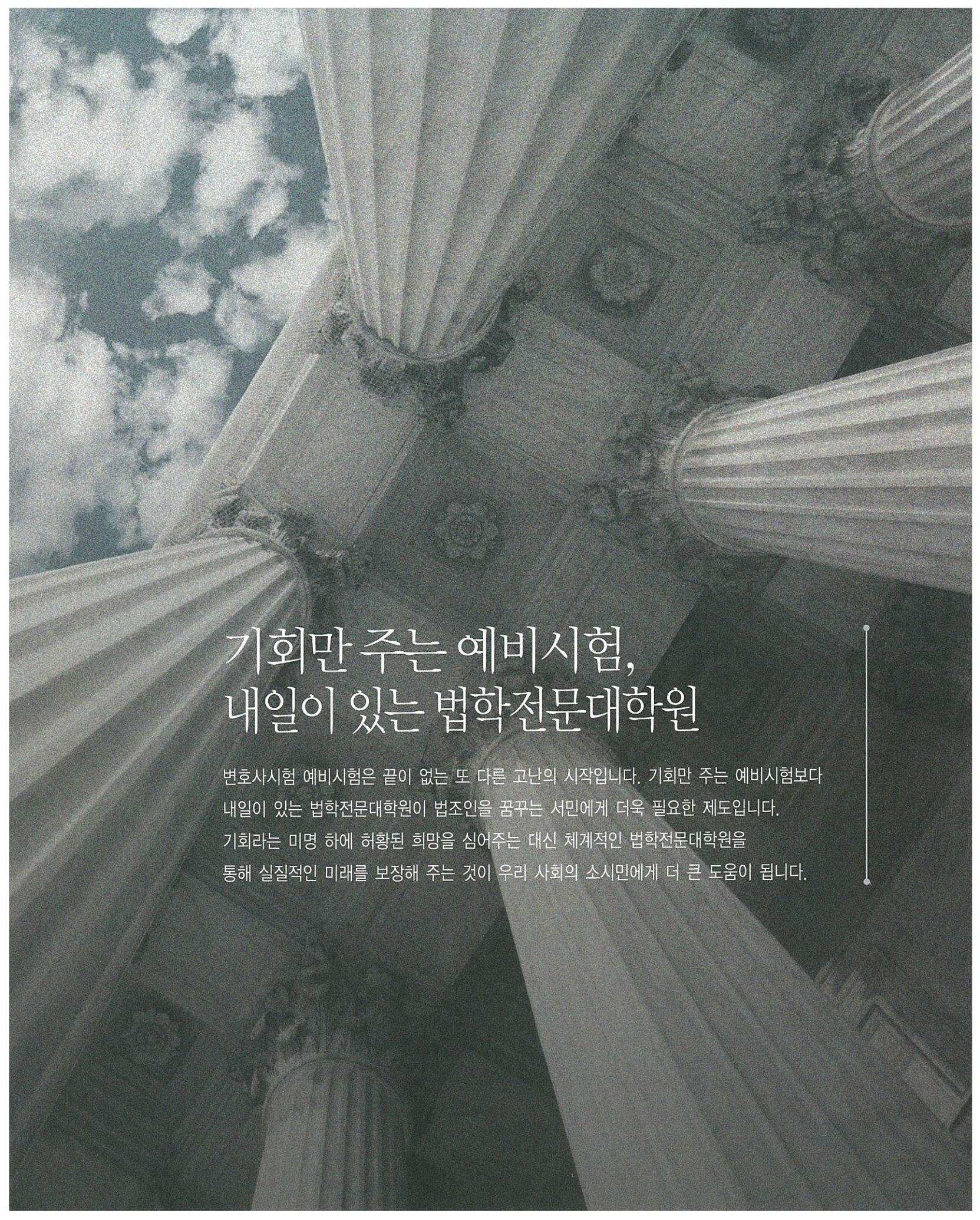


Voices of Students at Law School

우리는 막연한 기대만 갖게 하는
예비시험보다
분명한 미래를 선물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원합니다

기회에서 끝나지 않는 제도, 법학전문대학원





기회만 주는 예비시험, 내일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은 끝이 없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입니다. 기회만 주는 예비시험보다 내일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을 꿈꾸는 서민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기회라는 미명 하에 허황된 희망을 심어주는 대신 체계적인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실질적인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소시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VS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사회적 약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비용으로 인해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은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제도입니다. 예비시험은 사법시험처럼 사교육 시장을 키우고 '시험낭인'을 양산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부담시킬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게는 이러한 시험제도가 아닌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절실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특별전형과 장학 제도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꿈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배려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장학금 혜택과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특별전형제도가 있다. 반면 사법시험은 고액의 학원비가 든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가 큰 진입 장벽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경제 2012.08.16〉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출신대학, 전공분야가 다양화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학이 늘었다. 미래의 변호사 사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연합뉴스 2013.07.09〉

"(예비시험은) 사법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시험이 아니다. 20대의 대학 재학생들이 법학 전문대학원이라는 체계적인 법학 공부를 우회해 시험만으로 법조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법률저널 2013.07.12〉

Diversity

다양성 | 다양한 전공 및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증가

현대의 법적 분쟁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 기존의 사법시험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의료, 금융,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양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포괄적이고 일괄적이었던 법률서비스가 세분화되고 특화된 형태로 발전됨을 의미합니다.



출신대학의 다양성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평균 95개 대학(국내 72개)에서 입학생을 배출하고 있는 반면, 사법시험은 매년 평균 43개 대학에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인 진출 문호가 사법시험제도보다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공의 다양성

지난 5년 간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총 5,516명(연 평균 53.8%, 1,103명)의 비법학 전공자가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사의 비율은 60.8%(1,816명)에 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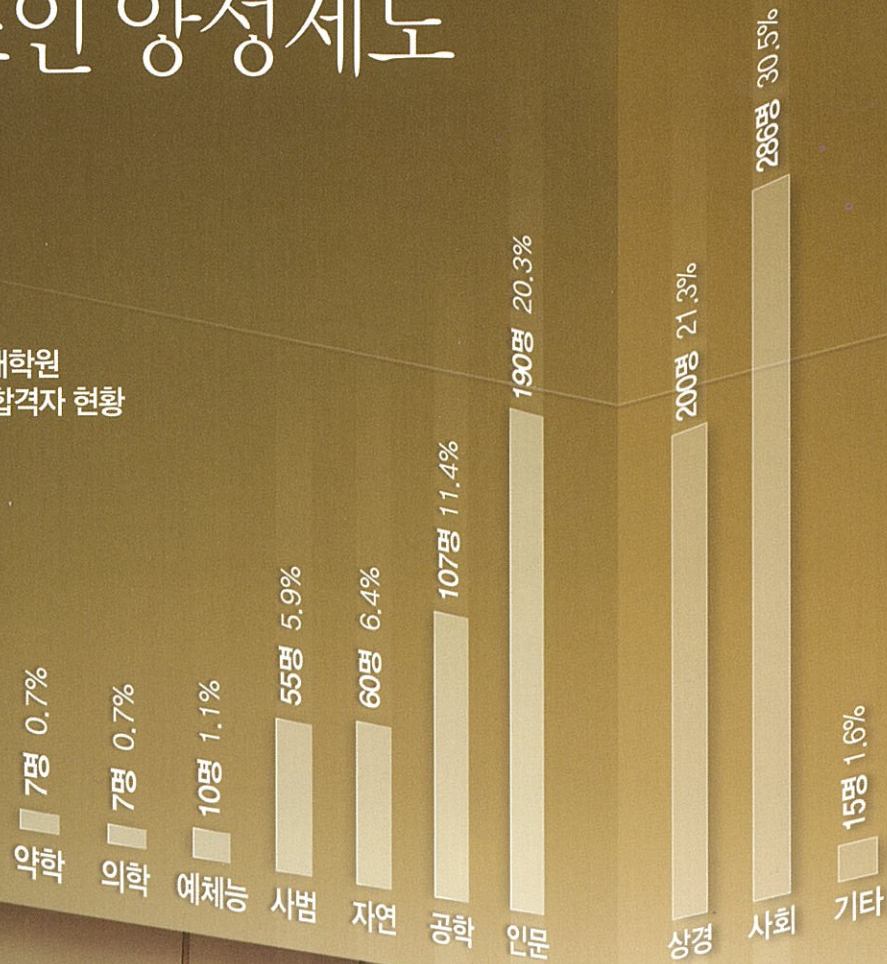


지식과 경험의 다양성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교사, 향해사, 공무원,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과 자격을 갖춘 이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자기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제도

○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
비법학사 계열별 합격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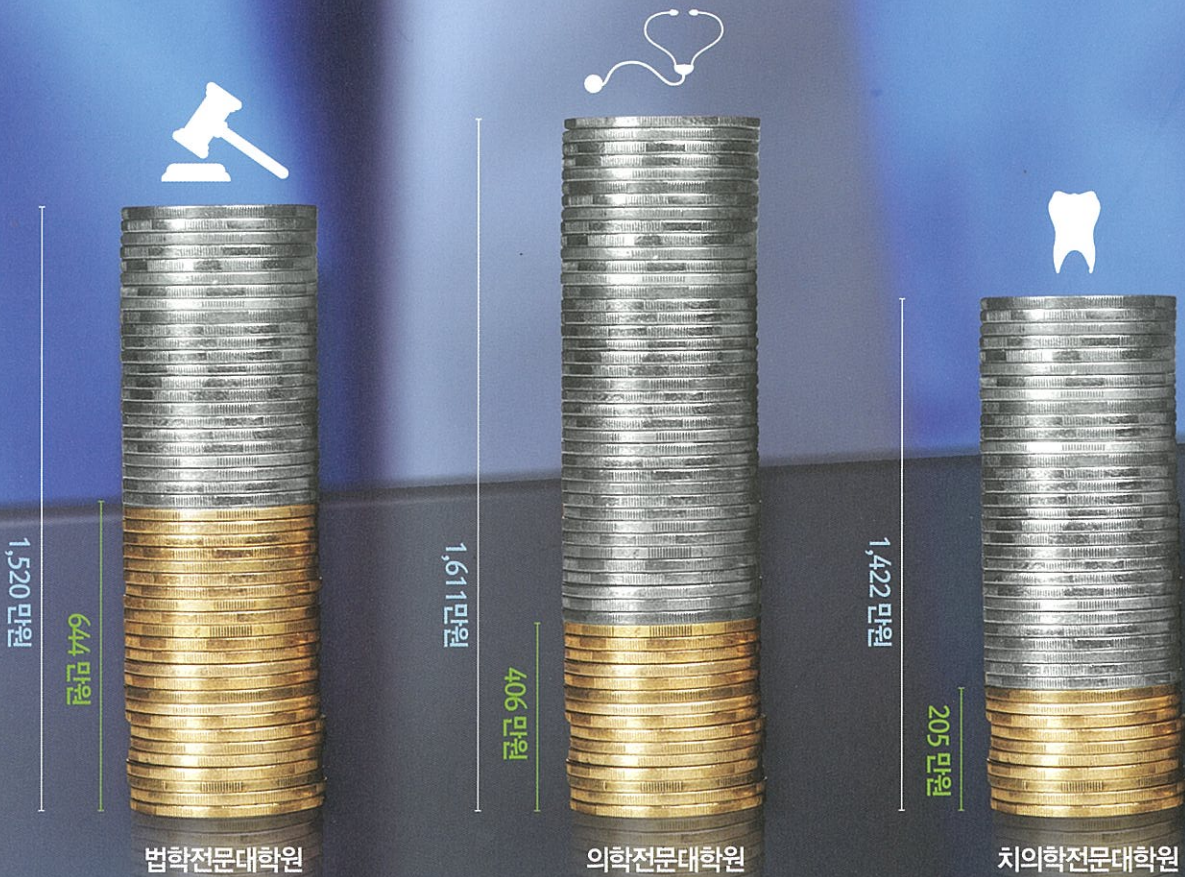


경제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이 아닌 장학금

○ 2011년 전문대학원 등록금 및 장학금 비교

등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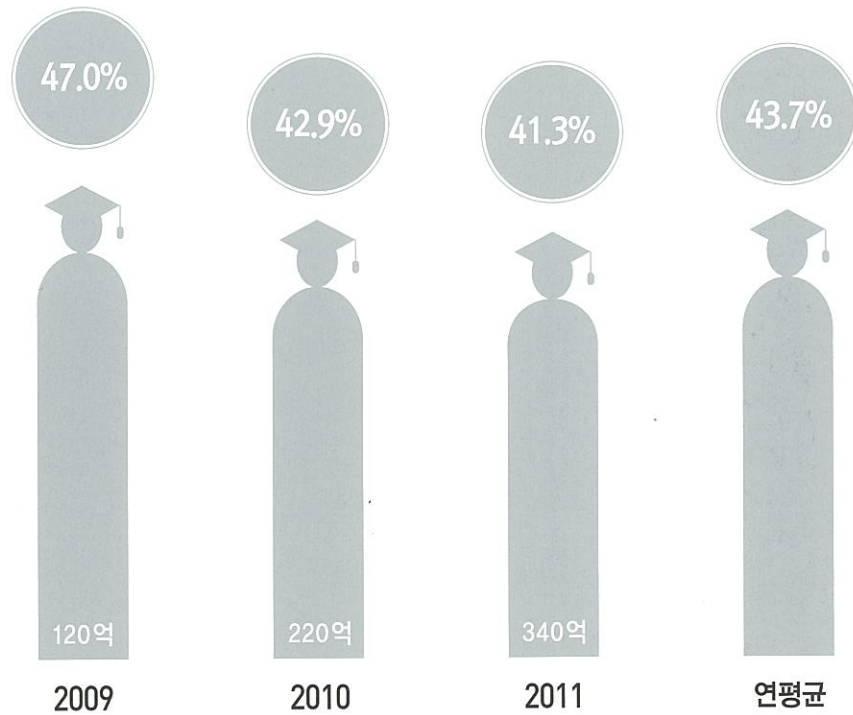
장학금



Scholarship

장학제도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제적 부담경감 노력

여러 전문대학원의 2011년 등록금 및 장학금을 비교해보면 법학전문대학원 학비가 비싸다는 것이 지나치게 과장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대학원 중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도 열정과 의지,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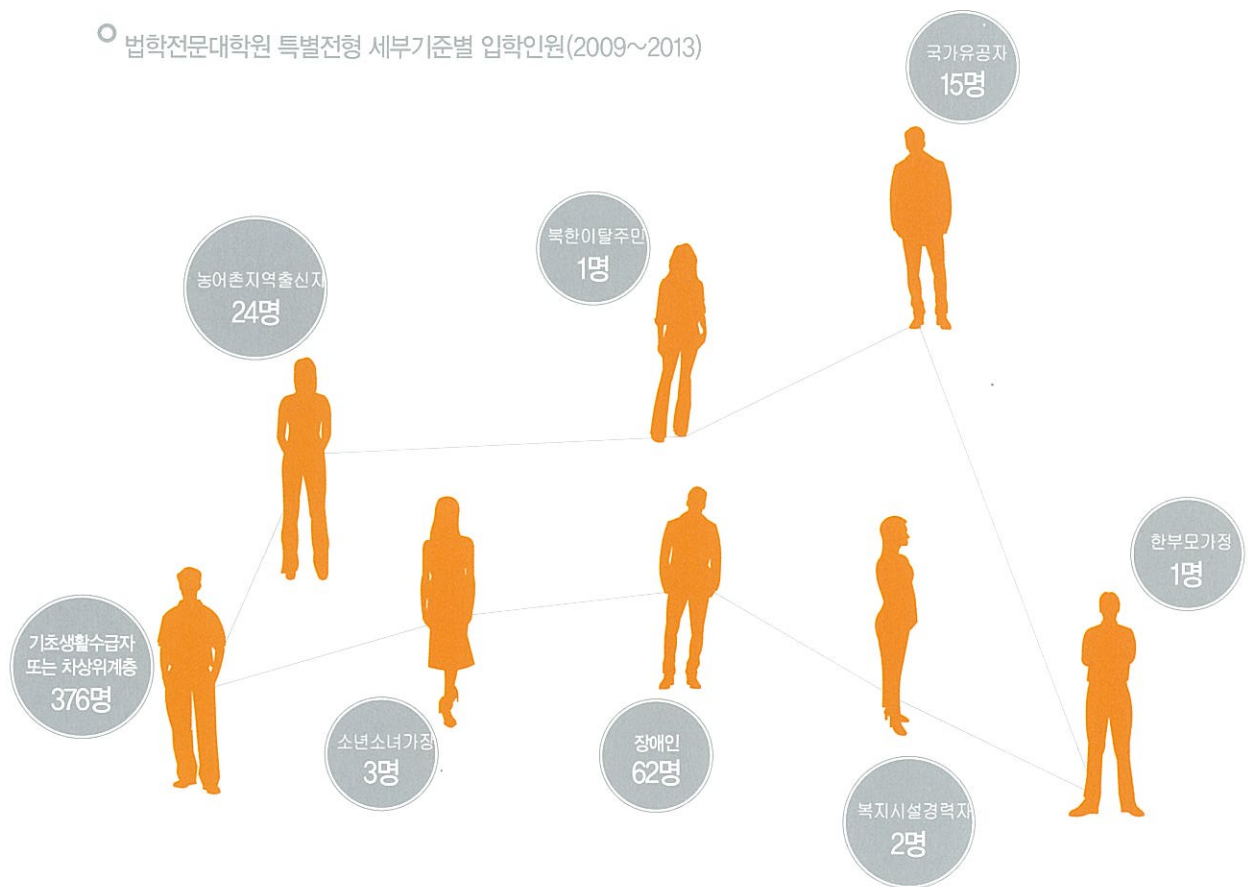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 중 93.5%가 장학금을 받고 있고, 이 중 86.5%는 전액장학금 수혜자입니다.

Special Admission

특별전형 |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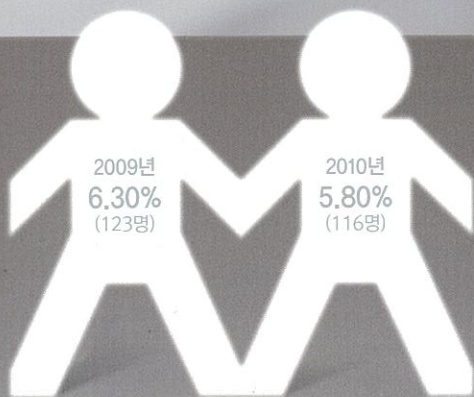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생의 5% 이상을 취약계층에서 선발해야 합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연 평균 6.08%(125명)의 취약계층 학생을 선발하여, 그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천의 용'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 법학전문대학원만의 특별한 제도입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세부기준별 입학인원(2009~2013)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 2009~2013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입학비율



법학전문대학원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교육 환경



Support

학습지원 | 미래 법조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특권

7만 권 이상의 법률 전문도서와 법학전문대학원생만을 위한 전용 교육시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우수한 교수진 등 양질의 교육환경은 글로벌 시대에 높은 경쟁력을 갖춘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의지의 산물입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에 의거, 정기적으로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평가인증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최상의 교육환경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교원

전임교수 20인 이상.
교원 1인당 학생 수 12명 이하로 제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20% 확보.



기숙사시설

학생정원의 최소 15% 이상 수용.
(학교별로 최소 19.4% ~ 최대 166% 확보)



교육시설

법학전문대학원만의 단독 건물, 강의실과 법학전문도서관,
모의 법정, 정보통신시설, 연구실, 세미나실, 휴식공간 등을 구축.
학생 1인당 실 면적 12㎡ 이상을 확보.



연구시설

전체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 35% 이하로 유지.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율이 300% 이상.
리걸클리닉(학생들이 실제사건 법률상담) 및 연구소 운영.

Falsity of Preliminary Examination

희망의 가면을 쓴 절망의 예비시험

일본의 법학교육을 무너뜨린 예비시험이 한국의 법학교육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은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본 법과대학원은 10년 차를 맞아 실패작이라는 비판과 함께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일본도 구사법시험을 폐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예비시험을 도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학전형을 마련해 놓았고 장학제도도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시험의 도입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출처 : 2013.008.22 중앙일보 일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가마타 가오루(鎌田 薫) 와세다대 총장 인터뷰 중)

예비시험은 사법시험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예비시험은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는, 다시 말하면 경쟁률이 높고 탈락자가 대부분인 시험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의 폐해를 고스란히 답습할 것입니다. 이는 사법시험의 문제를 바로 잡고 발전적으로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에 반합니다.

예비시험은 개선된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만이 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폐쇄적인 법조문화 개혁,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확보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다란 장점은 모르쇠하면서 마이동풍으로 일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면서 예비시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비시험은 개천에서 용을 나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 예비시험 합격자 중 상당수는 법과대학원생 및 대학생입니다. 이는 예비시험이 개천의 용을 배출하는 제도가 아닌 시험에 능한 사람의 우회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118명
2012년 일본 예비시험
응시자수

2,000명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0명
합격자 중 최종학력이
단기대학 졸업 이하인 자

128명
2013학년도 특별전형
입학생 수

허울뿐인 계층사다리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열린 기회의 제공
법학전문대학원



PREJUDICE
AGAINST
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100-0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8 5층
T 02 888 2031, 4 F 02 888 202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info.leet.or.kr • 법학적성시험 / www.leet.or.kr